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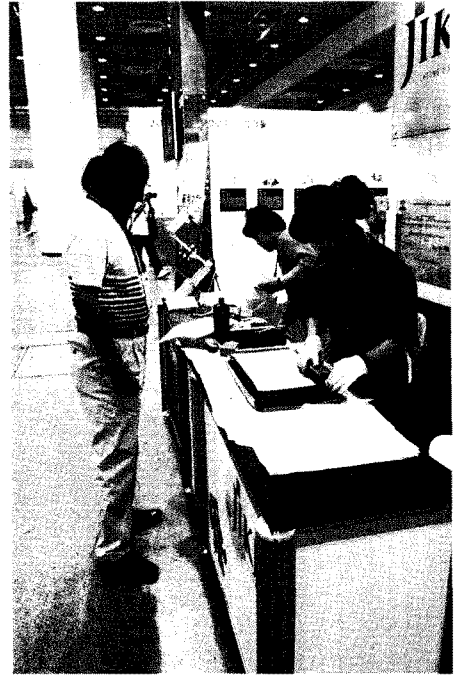
23개국 572개 출판사 참여 ... 다양한 기획전 세미나 풍성

# 인협, 인쇄문화홍보관 조성 직지 등 홍보

국내 최대 책 전시회인 2011 서울국제도서전([www.sibf.or.kr](http://www.sibf.or.kr))이 '책은, 미래를 보는 천 개의 눈'이라는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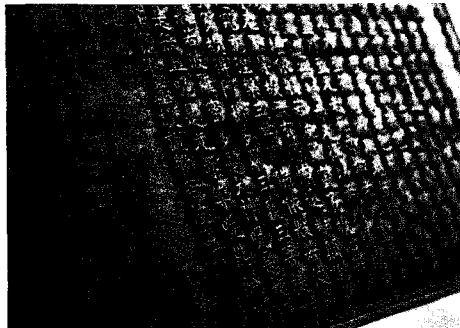
6월 15일 오전 11시 코엑스 A홀 입구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영부인 김윤옥 여사, 윤형두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재윤 국회의원, 최구식 국회의원, 김남수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등 정부 및 출판 인쇄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mailto:sang@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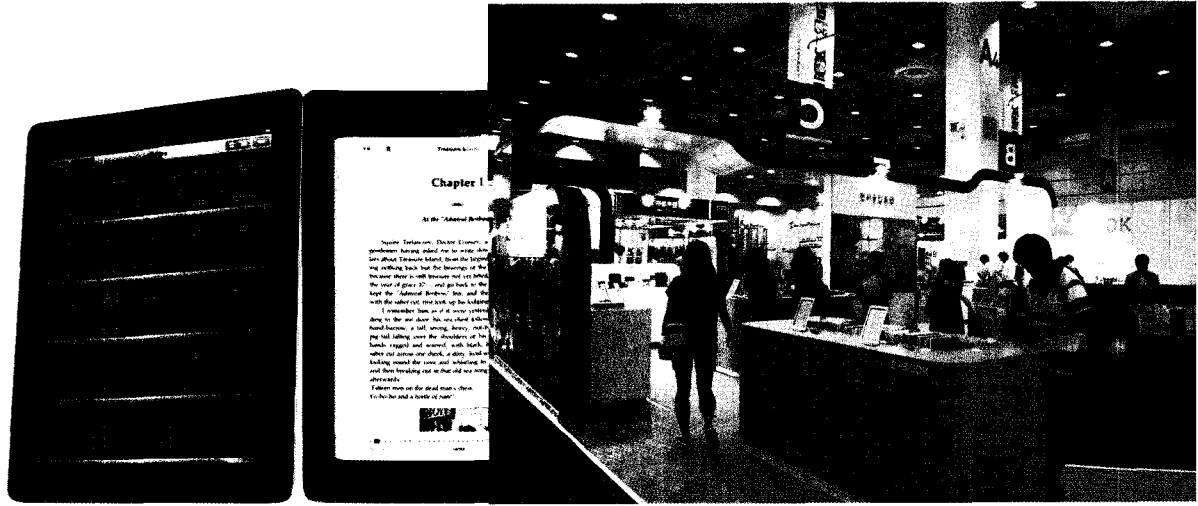
윤형두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도서전은 출판의 과거와 현재와의 만남이라는 기치 아래 초조대장경을 비롯한 문화유산과 뉴미디어 시대를 리드하는 전자책 관련 정보를 연결하는 천 년의 출판 역사를 조망해 보는 데 초점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윤옥 여사는 “우리 책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출판계가 소통하고 우리 문학이 외국에 소개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도서전에는 국내는 물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3개국 572개의 출판사가 참여해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전 분야의 도서를 소개했다. 또한 대한인쇄문화협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인쇄문화홍보관을 꾸려, 직지 및 고인쇄 문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 ▲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전

2011년은 팔만대장경의 초경인 초조대장경이 발원한지 천 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갔던 외규장각 도서가 145년 만에 돌아온 기록문화에 있어서 뜻 깊은 해이다. 이를 기념해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대표 전시회로 ‘우리의 찬란한 기록문화유산전’을 마련해 초조대장경 인쇄본과 더불어 팔만대장경 복간판, 현대 기술로 재현된 반야심경 등을 소개했다. 전시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 동의보감, 일성록, 5·18민주화운동기록물 등에 대한 소개를 했다. 또한 대장목록과 의궤, 사경 등의 원본을 전시했으며, 팔만대장경 중 반야심경을 직접 탁본해 보는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 전자출판물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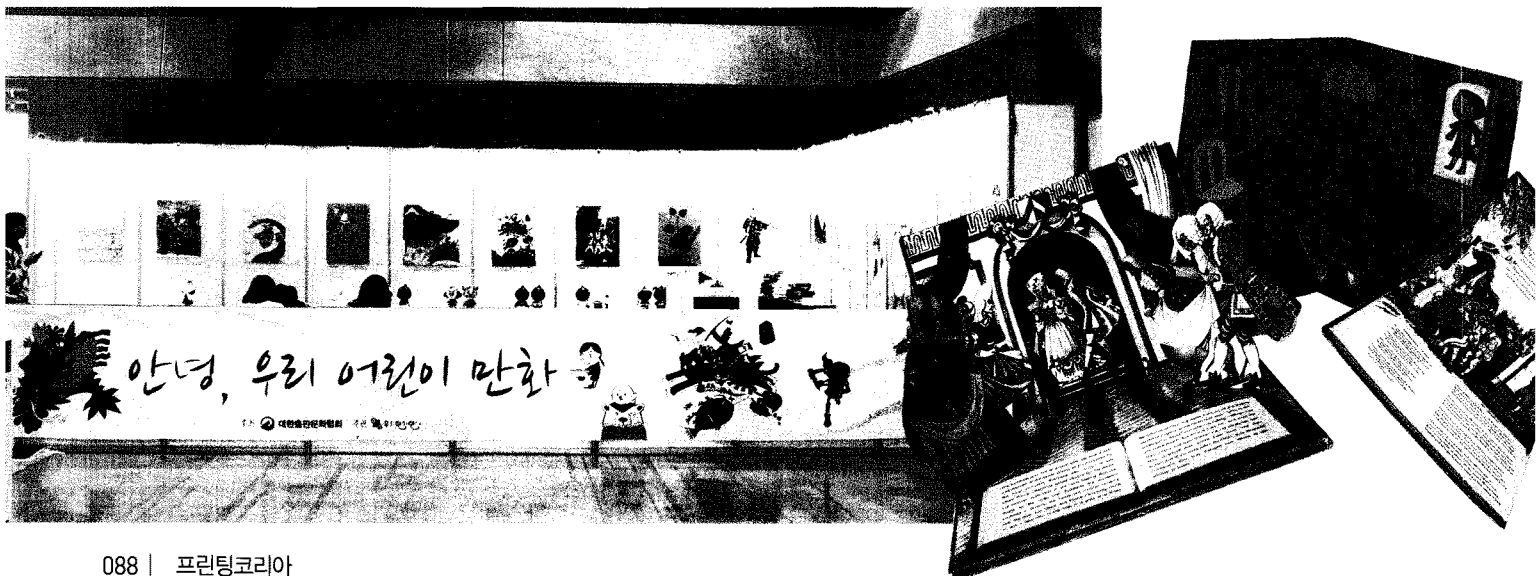
태블릿 PC, 스마트폰의 사용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책을 소개하는 'E-SQUARE' 코너도 마련됐다. PDF 파일, e-pub 파일의 카테고리라 앱 북의 카테고리라 나누고, 아동, 청소년용 도서, 문학, 실용서로 장르를 구분하여 e-ink 단말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약 70여 개의 단말기를 통해 전자출판 콘텐츠 약 600여 종을 전시했다. 이외에도 전자출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객이 직접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게시글을 전자출판용 파일로 만들어 편집, 디자인해보는 체험행사도 열렸다.

▼ 소녀전, 블로냐 수상작전시, 팝업북 등 눈길

전시장 B홀은 아동·일러스트레이션관으로 꾸며졌다. '주제가 있는 그림책-소녀'전은 블로냐 아동도서전 한국관 특별전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주제가 있는 그림책' 시리즈의 두 번째로, '그림책속의 여자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여자아이들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한국의 창작그림책 130권을 전시했다.

'2011블로냐가치상 수상작 특별전'은 2011 블로냐가치상 수상작 12권과 올해 논픽션 부문 우수상 '거짓말 같은 이야기'의 원화 8점을 전시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는 올해 블로냐가치상 한국출품작 15개사 63종 중 시공주니어가 출품한 작품이다.

'책이 살아있다-세계의 팝업북' 전시에서는 19세기 팝업북의 시초가 되었던 무버블북(Movable Book)을 포함하여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빈티지 팝업북과 희귀 팝업북 등 현재 세계 각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팝업북을 전시했다. 팝업북 코너에 전시된 100여권의 팝업북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었다.





1-3. 출판유통진흥원,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학회에서 주최한 학술세미나 전경

### ▲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 카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 마련

‘저자와의 대화’에서는 현재 한국 문단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소설집을 낸 김진명, 은희경, 김인숙, 조경란 작가 등을 비롯해 장차 한국 소설 문단을 이끌 구병모, 김애란, 정유정 등 역량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여 작품에 대해 독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화, 역사, 고전, 철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강연하는 인문학 카페 시간도 큰 인기를 얻었다.

### ▲ 출판 전문가들을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 구성

작년에 이어 국내외 출판인들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했다. 15일에 진행된 ‘디지털출판-전문가들로부터 듣는 최신 동향’은 전자출판의 세계 최신 동향과 전자책 제작에서부터 유통, 판매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았다. 이 세미나에서는 박영률 박영률 출판사 대표의 사회로 구모니카 도서출판 M&K 대표가 ‘한국의 전자책 현황’에 대해, 레슬리 헬스 하퍼 콜린스 디지털 사업개발 담당 선임 부회장이 ‘전자책 비즈니스에 대한 미국의 관점’에 대해, 로날트 실트 MBV사 최고경영자가 ‘전자책유통-도전과 해결책’에 대해, 크리스티나 처치 블룸즈베리 디지털관리자가 ‘저자에서 독자에게-사례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출판학회에서는 ‘한일 출판 저작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회의가 진행됐다. 호시노 와타루 일본출판학회 이사가 ‘일본 출판산업의 변용: 시장구조 변화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 김기태 한국출판학회 부회장이 ‘한일 출판저작권교류의 현황과 전망’, 이창경 신구대교수가 ‘조선통신사가 한일출판교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출판유통진흥원에서는 ‘구텐베르크 2.0-출판산업을 위한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국제출판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출판유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모델을 소개했다. 이외에도 ‘한국 문학도서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사례와 향후방향’, ‘한국 아동도서의 프랑스 진출현황 및 향후과제’, ‘도서관에서의 장서 구입 정책과 선정도서목록’, ‘한국 아동도서의 해외진출방안’, ‘한국실용도서 해외진출방안’, ‘한국출판 위기인가 기회인가’ 등 다양한 컨퍼런스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G